

더불어 민주당 인재위원회 2026.4.30.(목)	보도자료	
	담당 : 인재위원회	연락처: (02)6788-6256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 베테랑** 김성범 전 차관 영입 -32년 해양수산 행정 전문가.. “현장과 결과로 서귀포의 미래 열겠다” -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위원장 정청래 당대표)는 4월 30일(목) 11시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김성범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영입인재로 발표했다.

김성범 전 차관은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이후 32년간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 해양정책실장 등을 거쳐 차관에 이르기까지 해양·수산·항만·국제협력 등 국가 해양 행정의 핵심 보직을 두루 섭렵한 정통 관료이다. 특히 차관 재임 시 해양수산부 부산 청사 이전 등 국가적 프로젝트를 조기에 완수하고, 국제기구(IOPC) 의장 활동 및 대형 국제회의(Our Ocean Conference)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등 탁월한 정책 조정 및 추진 능력을 검증받았다.

영입식에서 김성범 전 차관은 “행정의 본질은 현장의 문제를 제도로 풀고, 예산으로 움직이며, 결과로 증명하는 일”이라며, “공직 32년 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과 제도로 연결해왔던 것처럼, 이제 그 경험과 역량을 고향 서귀포를 위해 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저는 서귀포에서 출발해 더 큰 경험을 쌓고 돌아온 사람”이라며, “말이 아니라 결과로, 약속이 아니라 실행으로 서귀포를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인재위원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해 “대한민국 해양수산 행정의 달인, 해양수산 행정의 최고 전문가”라고 평가하며, “세계로 뻗어나가는 서귀포와, 세계를

선도하는 K-해양의 도약을 이끌어 주실 김성범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합류해주셔서 정말 든든하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날 영입식에는 정청래 인재위원장(당대표)을 비롯해 조승래 사무총장, 김영진 인재위원회 부위원장,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 김한규 제주도당위원장,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 강준현 수석대변인, 김기표 대변인, 한민수 비서실장, 김영환 정무실장, 조인철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김 전 차관을 환영하고 격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각 분야의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순차적으로 영입하여 정책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김성범 프로필

<붙임 2> 김성범 인재 소개

<붙임 3> 김성범 발표문

□ 일반사항

- 1968년 제주 서귀포 출생(58세)
- 서귀포 신례초등학교 졸업
- 서귀포 효돈중학교 졸업
- 서귀포고등학교 졸업(16회)
- 고려대 행정학과 졸업(87학번)
- University of Washington 해양대학원 졸업
(해양관계 석사, 1999년 입학)
-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졸업
(물류학 박사, 2012년 입학)



□ 주요 경력

- 해양수산부 차관(전)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전)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전)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전)
- 해양수산부 정책보좌관(전)
- 해양수산부 항만국 국장(전)
-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전)
-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전)
- 제37회 행정고시 합격(1993)

바다로 둘러싸인 서귀포에서 태어난 서귀포의 아들

김성범 인재는 제주 서귀포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남원을 신례리, 감귤밭과 중산간 마을의 바람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서귀포는 삶의 뿌리이자, 공직생활 내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온 고향입니다.

김성범 인재에게 제주는 관광객이 바라보는 아름다운 섬만이 아닙니다. 농민과 어민, 소상공인과 청년, 부모와 아이들이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김성범 인재는 제주를 말할 때 풍경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 풍경을 지켜온 사람들의 땀, 그 삶을 더 낮게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을 함께 말합니다.

감귤밭의 소년, 대한민국 해양수산 행정의 중심에 서다

김성범 인재는 서귀포에서 초·중·고를 마치고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대학 입학 후 행정고시를 준비했고,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1994년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32년 동안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 정책기획관, 항만국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정책관, 해양정책실장을 거쳐 차관에 이르기까지 정책기획과 예산, 국회 대응, 국제협력, 항만, 수산, 해양신산업을 두루 섭렵했습니다.

김성범 인재는 행정의 본질을 “현장의 문제를 제도로 풀고, 예산으로 움직이며, 결과로 증명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가면 문제가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들으면 해법이 보인다는 믿음은 김성범 인재의 공직생활을 관통하는 원칙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해양 리더십을 세계에 보여준 정책가

김성범 인재는 해양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며 대한민국 해양외교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2024년부터 Our Ocean Conference 준비를 본격화했고, 2025년 4월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존 케리 전 미국 국무장관, 피터 톰슨 유엔 해양특사 등 세계 해양 리더들이 대한민국의 해양 리더십을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김성범 인재는 이 행사에서 제주 하도리 해녀합창단의 공연을 기획했습니다. 대한민국 해양정책의 중심에 기술과 산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와 함께 살아온 사람들, 특히 제주 해녀의 역사와 삶이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해양정책의 품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습니다.

일을 해내는 행정가

김성범 인재의 강점은 계획을 세우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성범 인재는 복잡한 정책을 실제로 움직이고 끝까지 완성해 본 사람입니다.

김성범 인재는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임명된 직후 해수부 부산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차관 임명 후 20일 만에 부산청사 건물 임대를 결정했고, 예비비를 확보해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직원들을 위해 주거, 이주수당, 학자금 등 두터운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재정당국과 대통령실을 설득하고, 부산시와 협상하며 이전의 실질적 조건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성범 인재는 차관으로서, 또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그 과정을 실무적으로 총괄했고, 2025년 12월 23일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모시고 부산청사 개청식을 치렀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내려진 지시를 6개월도 안 되어 완수한 것입니다.

서귀포가 키운 사람, 이제 서귀포를 키울 힘이 되겠습니다.

김성범 인재의 삶은 서귀포에서 시작해 중앙정부와 국제무대로 이어졌습니다. 감귤밭에서 일하던 소년은 대한민국 해양수산 행정의 중심에 섰고, 국제기구의 의장을 맡았으며, 국가적 프로젝트를 완수한 차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성범 인재가 돌아가고 싶은 곳, 자신의 경험을 바치고 싶은 곳은 결국 고향 서귀포입니다.

김성범 인재는 서귀포가 가진 가능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바다와 농업, 관광과 문화, 국제성과 공동체가 함께 있는 도시. 하지만 그 가능성이 시민의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력 있는 실행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중앙정부를 움직여 본 경험, 국제사회를 설득해 본 경험, 국회와 부처를 조정해 본 경험으로 이제 서귀포의 새로운 길을 열고자 합니다.

서귀포가 낳은 김성범, 대통령의 일꾼이 이제 서귀포를 키울 힘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범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귀포가 낳은 대통령 일꾼으로서 32년간 쌓아온 국정 경험과 힘을, 이제 고향 서귀포를 위해 쓰겠다는 마음 하나로 섰습니다.

저는 서귀포 남원읍 신례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산간 마을의 바람 속에서 자랐고, 겨울이면 감귤밭에서 일하고 뛰어놀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이른 봄 새벽, 어머니가 고사리를 캐러 가실 때 중학생 때부터 경운기를 몰고 모셔다 드리던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관광객에게 제주는 아름다운 섬이지만, 제주 사람에게는 땀 흘려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저는 바로 그 현장에서 태어났고, 그 현장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서귀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대학을 다니던 중,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수산과 어촌, 해운과 항만, 해양관광과 신산업, 국제협력까지, 대한민국 해양수산 행정의 거의 모든 영역을 다루면서 32년을 일했습니다.

저는 공직생활 내내 한 가지 생각을 지켜왔습니다. 문제도 현장에 있고, 답도 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농민은 왜 힘든지, 어민은 무엇을 걱정하는지 청년이 왜 고향을 떠나는지, 그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과 제도로 연결해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 그것이 행정이고 정치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말보다 결과로 증명해 왔습니다. 해양수산부 차관으로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총괄했습니다. 임명 후 20일 만에 새 청사를 결정했고, 직원들 주거 문제, 자녀 교육 문제까지 하나하나 챙기면서 재정당국을 설득했고, 부산시와 협상해서 파격적인 지원대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해 12월 23일, 이재명

대통령님을 모시고 부산청사 개청식을 열었습니다. 6개월만에 임무를 완수한 것입니다.

불법 중국어선 벌금 상향 문제도, 국회와 적극 소통해서 국무회의 보고 후 3개월도 안 되어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이 제가 일해온 방식입니다. 미션은 정책으로, 정책은 법과 예산으로, 그리고 법과 예산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결과를 만드는 것, 이것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 실력으로, 서귀포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는 서귀포를 만들겠습니다. 해양정책실장으로서 지난 해 ‘Our Ocean Conference’라는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존 케리 전 미국 국무장관’, ‘피터 톰슨 유엔 해양특사’ 등 한자리에 모인 세계 리더들이 대한민국의 해양 리더십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행사 개막식에 제주 하도리 해녀합창단을 초청했습니다. 해양정책의 중심에, 기술과 산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와 함께 살아온 사람들, 제주 해녀의 역사와 삶이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많은 참석자 분들께서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서귀포 사람이었기에 할 수 있었던 기획이었습니다.

그리고 2028년 UN해양총회의 대한민국 유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유엔 총회를 뛰어다니며 회원국들을 설득했고, 결국 해냈습니다. 앞으로 서귀포도 이 여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귀포는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감귤 값도 걱정이고, 아이가 아파도 응급실이 너무 멀고, 청년들은 하나둘 떠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구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법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관계부처 간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 방법을 압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귀포에서 출발해, 더

큰 경험을 쌓고, 이제 고향을 위해 돌아갑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고향 친구들이 있고, 감귤밭이 있고, 바다가 있는 곳, 서귀포로 돌아 갑니다. 공직 32년, 그동안 배우고 쌓아왔던 것 모두를, 서귀포에 쏟아붓겠습니다.

서귀포가 저를 낳았습니다. 이제 제가 서귀포를 지키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답하겠습니다. 약속이 아니라 실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서귀포가 낳은 일꾼, 대통령이 인정한 일꾼, 저 김성범! 이제 서귀포를 키울 힘이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